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2.6(금) ~ 2024.12.12(목)

제공일시 2024 12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2.6(금) ~ 2024.12.12(목)

제공일시 2024 12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 中 청정에너지 소재에 '최대 50%' 관세

- 미국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소재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소재에 대한 관세를 지금보다 2배인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또, 텅스텐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짐
- 새로운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몇 주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FT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율 인상은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부문을 중국산 저가 소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짚음

[\(글로벌이코노믹 2024.12.11\)](#)

2. EU, 지열로 러시아 가스 대체... 27개국 공동 승인 추진

-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카드로 지열에너지를 꺼내 들음. EU는 넷제로 산업법에서 8대 전략기술로 지열을 지정한 데 이어 회원국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지열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공동 정책을 채택할 예정임
- 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EU 문건에 따르면, EU 27개국은 다음주 브뤼셀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지열에너지를 공동 승인함
- EU는 지열에너지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임

[\(임팩트온 2024.12.11\)](#)

3. 美 에너지부, 핵심광물 연구사업에 250억원 투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 연구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 이번 투자는 자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 미 에너지부는 14개 프로젝트에 총 1700만달러(약 250억원)를 투입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함
- 해당 자금은 △수소 연료 전지 △고효율 모터용 자석 △고성능 리튬 이온 배터리 △고수율 저결함 전력 전자 장치 등 첨단기술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에 쓰일 예정임.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11개 주에서 진행됨

[\(더구루 2024.12.11\)](#)

국내 정책

1. 12대 국가전략기술·17대 탄소중립기술 전략지도 완성

- 정부가 국가별 기술 수준 파악을 통해 국제협력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위해 마련해온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7대 탄소중립기술 전략지도를 완성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열어 총 16개 기술 분야에 대한 '글로벌 R&D 전략지도안'을 심의함
- 이번 특위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사이버보안, 차세대 원자력, 첨단로봇·제조, 우주항공·해양, 첨단 모빌리티와 17대 탄소중립기술 중 에너지통합시스템, 제로에너지 건물, 탄소중립 선박, 친환경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산업일반, 환경 분야에 대한 전략지도가 수립됨

[\(연합뉴스 2024.12.6\)](#)

2. 오영주 장관 "UAE와 중소기업 분야 협력 지속 강화할 것"

- 오영주 중소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알리아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기업가정신 특임장관과 만나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함. 장관급 협의회를 신설한 이후 첫 대면임
- 중기부는 10일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제1차 한-UAE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 오 장관은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딥테크 분야 협력을 제안하고, 올해 개소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도 UAE측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함
- 알리아 특임장관은 "AI, 딥테크 혁신, 농업부문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업을 도모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 규제 등 국제협력을 위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뉴시스 2024.12.10\)](#)

3.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尹정권이 후퇴시킨 기후정책 되돌릴 것"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3기가 닳을 올리고 민생의제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돌입함
- 더불어민주당 상설위원회인 탄소중립위원회가 9일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 3기 탄소중립위원회는 3선의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위원장을 맡아 이끔
- 출범식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 △시군별 탄소중립센터 거점 활용 △지방정부 우수성과 발굴 △비효율적인 규제 완화 △에너지 의제 다변화 △기관투자 ESG 실적 점검 △사업별 입법 과제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됨

[\(M이코노미뉴스 2024.12.10\)](#)

글로벌 기업

1. BP, 일본 JERA와 해상풍력 합작법인 설립

- 영국의 메이저 에너지 기업 BP와 일본 최대 전력 생산업체 제라(JERA)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서 손을 맞잡음
- 두 회사는 '제라넥스 bp(JERA Nex bp)'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9일(현지시각) 닷케이 등 현지언론이 발표함
- BP는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자사의 해상풍력 자산을 JERA와 통합하고 잠재 발전 용량을 13GW로 확대할 예정임

[\(임팩트온 2024.12.11\)](#)

2. CATL, 스텔란티스와 유럽 공장 짓는다... K-배터리, 유럽 주도권 경쟁 '비상'

- 임글로벌 배터리 시장 1위 중국 CATL이 유럽 내 생산공장을 추가로 지음
- 이에 독일, 헝가리에 이어 스페인까지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배터리 생산 거점을 더욱 늘리게 됨
- 특히, CATL이 단독 공장 형태로 독일, 헝가리에 진출한 것과 달리 이번 스페인공장은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합작공장 형태로 진행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CEO스코어데일리 2024.12.11\)](#)

3. 日 세키스이, 세계 첫 '슈퍼 태양광 패널' 출시 계획 발표

-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 20개 이상을 합친 것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슈퍼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힘
- 8일(현지시각) 친환경에너지 전문매체 ECO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지원 속에 PSC 기술의 상업화를 추진 중인 세키스이화학공업은 PSC에 기반한 태양광 모듈을 오는 2030년 이후 출시를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이라고 발표함

[\(글로벌이코노믹 2024.12.9\)](#)

4. 中 최대 희토류·알루미늄 기업, 전략광물 안전보장 맞손... 대미 수출통제 강화되나

- 중국 국영 희토류 기업 중국희토그룹(中国稀土集团)과 중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 기업 중국알루미늄공사(CHALCO)가 협력 강화를 선언함
-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희토그룹과 중국알루미늄공사는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함
- 양사는 오랫동안 프로젝트 건설과 자재 공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데 이어 이번 협정을 계기로 국가 주요 전략 목표에 집중하며 기술 연구와 프로젝트 연구개발(R&D), 무역 사업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더구루 2024.12.10\)](#)

국내 기업

1. 삼성물산, 미래 먹거리 SMR 시장 '정조준'

- 건설업계가 내수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시장을 벗어나 해외서 미래 먹거리 찾기에 나서고 있음.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예외는 아님. 해외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스웨덴 민간 SMR 개발사 칸플 넥스트와 SMR 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삼성물산과 칸플 넥스트는 발전소 운영을 위해 스웨덴 남동부 2개 부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단행함. 삼성물산은 2032년까지 칸플 넥스트와 SMR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함

[\(오늘경제 2024.12.11\)](#)

2. LS전선, 9천73억원 규모 독일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 LS전선은 네덜란드 국영 전력회사 테넌트의 독일 자회사 테넌트 오프쇼어와 독일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공시함
- 계약 금액은 9천73억원으로, 작년 매출액의 14.59%에 해당함. 계약 기간은 12일부터 2031년 9월 30일임
- LS전선은 이 사업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525kV(킬로볼트) 해저 및 지중 케이블과 액세서리 등의 자재를 공급하고 전기접속공사 및 현장 시험을 함

[\(연합뉴스 2024.12.11\)](#)

3. 포스코홀딩스, 호주 Hancock와 리튬 사업 협력... 배터리 소재 공급망 강화

-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광산기업 Hancock Prospecting)과 손잡고 이차전지용 원료 공급망 강화에 나섬
- 포스코홀딩스는 9일 Hancock와 리튬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힘.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연산 3만톤 규모의 리튬 사업을 추진함
- 양사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 중 최적의 리튬 공장 설립 후보지를 함께 검토할 예정임

[\(디지털데일리 2024.12.10\)](#)

4. OCI 에너지, 美 텍사스 120MW급 '알라모 시티 ESS' 프로젝트 수주

- OCI홀딩스의 미국 태양광 발전 자회사인 OCI 에너지가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를 수주함
- 9일 OCI 에너지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CPS 에너지와 '알라모 시티 ESS(Alamo City ESS)'라는 ESS 프로젝트를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함. 텍사스주 백사카운티 남동부 지역에 120MW(메가와트·480MWh)급 ESS를 구축하는 것임
- 새로운 ESS 프로젝트는 오는 2026년 말께 가동 예정이며, 향후 20년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지역의 에너지 공급원이 될 전망이다

[\(더구루 2024.12.9\)](#)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12.6(금) ~ 2024.12.12(목)

제공일시 2024 12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아세안, 2050년 탄소시장 규모 4300조원... 그린잡은 50배 증가 전망

- 아세안(ASEAN)이 역내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2050년까지 연간 11억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3조달러(약 4311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음.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규제체계 강화와 표준화, 제도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아세안(ASEAN)이 4일 발표한 '아세안 탄소시장 기회' 보고서는 역내 탄소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분석했음

- 우선, REDD+(산림 전용·황폐화 방지) 시장은 아세안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2050년까지 연간 270억달러(약 3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음. 전체 국토 면적의 47%가 산림 생태계로 이뤄진 아세안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61만 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손실된 만큼 산림 보전을 통한 탄소감축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됐음

- 블루카본 시장은 전 세계 맹그로브 숲의 35%를 보유한 아세안의 강점을 활용해 2050년까지 연간 96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맹그로브 숲, 염습지, 해초 서식지 등 연안 생태계의 탄소 흡수 능력은 육상 산림의 최대 5배에 달하며, 이들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통해 상당한 탄소 크레딧을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임

- 바이오차 사업은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분야로, 2050년까지 연간 1430억달러(약 20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음. 아세안은 2022년 기준 1억9550만톤의 벼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쌀 생산지 중 하나로, 농업 부산물과 산림 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잠재력이 막대하다고 전망됐음

- 보고서는 2050년까지 예상되는 3조달러의 경제효과가 여러 경로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분석했음. 우선, 탄소 크레딧 판매 수익이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함. 현재 아세안의 탄소크레딧 발행량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2억3300만톤으로 전 세계의 7%에 불과하지만, 제도 준비를 통해 2050년까지 연간 11억톤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탄소시장 성장은 약 137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됐음. 현재 아세안 탄소 프로젝트들이 창출한 일자리가 2만7000개임을 감안하면 50배 이상의 고용 창출이 기대됨

- 탄소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탄소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계 서비스가 개선되고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가하며, 이는 다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됨

- 보고서는 아세안의 탄소시장 잠재력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담았음. 우선, 투자 유치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 승인절차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문서양식을 통일하고 처리기한의 명시, 담당 연락처 지정 등 행정절차를 표준화하고 탄소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문인력 확보도 당면 과제로 제시됐음. 아세안은 탄소시장을 전담하는 정부기관 설립할 것을 제안했음. 더불어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과정을 모델로 삼아 회원국 대학들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음. 아세안 차원에서는 REDD+, 블루카본 등 주요 프로젝트 유형별 실무그룹을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음

-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확보도 핵심임. 보고서는 국제 신용표준기구들과 협력해 아세안 특화 방법론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음

-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 도입도 구체화했음.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상쇄제도인 CORSIA에 주목했음. CORSIA는 2026년까지 최대 2억4400만톤에 해당하는 탄소 크레딧의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세안이 고품질의 크레딧 공급망을 구축하면 역내 항공사들이 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임
-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한 국제협력도 구체화했음. 보고서는 아세안이 하나의 다자간 협정을 통해 해외 감축분(ITMO) 이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음. 개별 회원국이 각각 양자 협정을 맺는 대신 아세안이 공동 협상하면 행정 비용을 줄이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임

[\(임팩트온 2024.12.10\)](#)